

프랑스 혁명사

1783 미국 영국에서 독립 성공(독립전쟁) : 1776년 독립선언문(미국 독립전쟁 도와주다 프랑스로 혁명이념 전파)

1789 프랑스 혁명 - 바스티유 감옥 습격 혁명의 상징적 시초 -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

삼부회 부활시킴(귀족/성직자/시민계급의 대표의회)-> 국민의회로 개혁안 추진

1791 온건파 부르주아에 의해 추진된 개혁안 여러 개혁안 일반시민에게 만족감 주지못해 반발 - 국왕 도피 시도하다 붙잡혀
왕정-군주제에 대한 위협느낀 주변 국가(공정귀족의 부리인 부르봉, 합스부르크가 속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프랑스 간섭

1792 4월 주변국에 전쟁 포고, 극우파(왕공편), 온건좌파(시민편), 자코뱅파 등 여러 시민지도자 출현, 국왕 투옥

1793 군주제 타도로 국민공회 설립(공화국 설립) - 주변국가 대불동맹(혁명성공하면 우리도 난리난다 - 프랑스 왕따)

:지롱드당(지적인정당)/공안위원회(당통, 로베스피에르)와 국민공회 주요관리 자코뱅파의 공포정치(반혁명분자들 처형)

루이16세와 왕비 단두대 처형,

프랑스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전쟁중 - 1794까지 '혁명전쟁'

1794 단두대의 꾸준한 마찰음,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으로 좌파, 우파 지도자들 모두 처형됨

(혼란과 무질서한 정치적 공백기) -

1795 총재정부 출현(5인대표-원로원 500명) 혁명재판소 폐지, 나폴레옹 소속군 승전보

1796 나폴레옹이 이끄는 군대 이탈리아 원정 전쟁 승리, 이집트 원정에서 영국에게 승리

~1799 저지대의 여러나라들, 라인란트, 에스파냐, 스위스와 사보이 등 점령

나폴레옹 원로원 500인 의회 해산하는 쿠데타-제1통령(종신통령)으로 법 개정 - 귀족 재호출, 나폴레옹 법전

1804 나폴레옹 황제 대관식 - 봉건적 토지 소유관계 폐지, 신분 차별 철폐, 상품거래 자유, 성직자와 귀족으로부터 토지몰수
재분배 등 근대 시민 사회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한 나폴레옹 법전.

1805 모라비아 지방에서 유럽동맹군 패배. 독일일부, 이탈리아, 네덜란드 왕국 친척에게 할당.

1806 프로이센, 베를린 전투에서 승리. 주변국에 영국무역 봉쇄령을 명하며 권력과시

1808 에스파냐 점령, 프랑스군에 저항한 최초의 국가(다른 국가시민들은 대부분 혁명왕을 반기는 추세)

1809 오스트리아 반기 지도층인 합스부르크가의 공주를 아내로 삼는 나폴레옹(마리앙투아네트 7촌조카)

왕국개념이던 독일영주국들 동맹해 민족국가 결성 - 해방전쟁

1812 비밀리에 영국무역을 한 러시아를 응징하러 간 나폴레옹 모스크바 점령했으나 원정 패배

1813 유럽 동맹군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붙었으나 프랑스 패배 - 나폴레옹 퇴위(엘바섬 유배)

1814 유럽 지도자들 기존 왕정으로 복귀하자고 체결 '앙시앵 레짐'

프랑스 루이 18세 즉위(루이 16세 아들 사망해 동생이 즉위)

1815 나폴레옹 엘바섬 탈출, 왕위 탈환. 워털루 전투에 나섰으나 패배(영국총사령관+독일군)

1816 부르봉 왕조 부활, 자유주의자&자코뱅주의자 작은 반란들 지속.

루이 18세 재즉위 - 안정 도모위해 입헌 군주제 실현, 자유주의사상도 제한적으로 허용

1824 루이18세 사망으로 샤를 10세 즉위(왕당파) 자유사상 간행물 검열, 반동정책, 귀족과 성직자에 특권정책, 피난귀족들에게
토지돌려주는 반혁명정치

1830 '7월 혁명'으로 샤를 10세 쫓아냄, 망명한 귀족가문의 루이필리프 1세 즉위(금융귀족들의 지지) 프랑스의 왕이 아닌
프랑스시민을 위한 계약적 왕의 개념의 최초왕정. 자유사상 보호, 극단적인 왕권주의 반대, 프랑스혁명이념 견지

1846 흉작으로 농민폭동, 1847년 경제상황 악화, 타개책을 내놓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 개혁법을 추진하는 개혁연회 금지로

도화선으로 격렬한 시가전으로 확대

1848 '2월 혁명' 루이필리프 국외로 도망 임시정부 수립. 여러 조직이 의회장악을 노리면서 기득권논쟁 발생. 시민들의 피로도
상승으로 나폴레옹 시대 갈망. 남성보통선거 도입해 농민들의 대거투표 '루이 나폴레옹'(나폴레옹의 조카)의 제 2공화정 수립

당선후 쿠데타를 일으켜 제2제정을 수립하고 나폴레옹 3세로 즉위.

5인집정관의 적대관계로
혼란과 무질서,
시민들 평화에 대한 갈망으로
왕정복고 향수, 왕당파 대두